

2015 출판계 키워드 '책의 발견' '용기' '표절'...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선정

- 1, 저자 키우기 시스템 붕괴
- 2, '미움받을 용기' 베스트셀러
- 3, 스펙·트렌드가 된 인문학
- 4, 왜곡번역 논란
- 5, 도서정가제 시행
- 6, 신경숙 표절 논란

'책의 발견과 연결성', '미움받을 용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왜곡 번역 논란', '도서정가제 시행 1년', '신경숙 표절 논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출판전문지 '기획회의'가 '2015출판계 키워드 33'에서 선정한 올해 출판계 키워드다.

'책의 발견과 연결성'은 과거의 출판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신인작가를 발굴, 언론과 평론가의 도움으로 저자로 키우는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되지 어렵다.

웹툰의 성공 사례가 이를 보여주듯 이제 대중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연히 플랫폼에 들렀다 그곳에 있는 작품을 읽고 소통하는 일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제2의 IT혁명'이라 불리는 모바일 혁명은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상은 출판 관련 생산자와 독자의 연결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올해 출판계를 휩쓸었던 '미움받을 용기'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대중적으로 소개한 '미움받을 용기'는 저자인 기시미 이치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 책의 성공 요인으로 홍순철 BC에이전시 대표는 "'탄탄한 내용', '가독성', '차별화된 마케팅' 이렇게



신경숙



올해 출판계 키워드에는 장기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미움받을 용기', 문학계에 충격파를 던진 '신경숙의 표절 논란', 책의 생산과 공급, 소비 유통에 영향을 미쳤던 '도서정가제 시행 1년' 등이 뽑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그리스 철학을 전공한 철학자답게 기시미 이치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기법으로 기술했다"고 말했다.

'미움받을 용기'에 힘입어 기시미 이치로의 다른 책들,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버터내는 용기', '늘어갈 용기' 등이 경쟁적으로 번역 출간됐다.

키워드 3위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 뽑혔다. 인문학이 스펙과 트렌드가 되면서 정보 취득이 용이한 콘텐츠를 찾고자 하는 독자의 욕구와 맞아떨어졌다. "신자유주의가 뭘지,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지 몰라서 대화 자리가 두려운 당신에게"라는 소개글도 대중의 손길을 부추겼다.

4위는 '왜곡번역 논란'이다. 국내 출판 시장에서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가 넘는다. 비중이 높아질수록 번역

에 대한 논란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앙거스 티던 교수의 '위대한 탈출'을 둘러싸고 왜곡 번역 논란이 일었다.

장동석 출판평론가는 "번역서의 비중이 높은 한국 출판계가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찾아야 한다. 왜곡 번역 논란은 모든 문화의 원천인 텍스트를 다룬다는 자부심이 사라진 한국 출판의 자화상인지 모른다"고 말한다.

키워드 5위로 뽑힌 '도서정가제 시행 1년'은 책의 생산과 공급, 소비, 유통에 관련된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인 성과로 할인경쟁의 중단과 신간의 가격 안정화를 꼽을 수 있다. 반면 한도를 초과한 사은품 증정 등 편법 할인과 대형 온라인 서점의 솔리드 현상은 부정적인 양상으로 꼽힌다.

한국 문학계에 일대 충격파를 던진 '신

경숙의 표절 논란'(6위)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스타작가와 거대 출판사들의 카르텔, 신인 발굴에 인색해져버린 문학구조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문학권력으로 지목된 창비와 문학동네, 문지는 혁신과 변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다음으로 신생 케이블 채널 OtvN의 교양 오락프로 '비밀독서단'도 키워드 상위에 진입했다. 이 프로에서 언급된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목록에 오르고 있다.

'문학잡지 폐간과 'Axt'는 문학잡지 독자의 부재와 파는 집지로의 발상 전환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다. "책에 나오는 캐릭터나 문장, 표지 디자인 등을 차용하여 만든 부록 상품"을 뜻하는 '도서굿즈', 책을 매개로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엮어내고 있는 '동네서점의 변신'도 키워드로 선정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크리스마스 칸타타' 광주·전남에 왔다

오늘 조선태 해오름관 대강당

22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그라시아합창단의 '2015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미국 투어를 마치고 광주·전남에서 공연을 갖는다. 17일 오후 3시30분-7시 30분 조선태 해오름관 대강당, 22일 오후 7시30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오페라와 뮤지컬, 합창으로 재연한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15년간 관객들을 만나온 작품으로 특히 올해는 세종문화회관 공동주최, 전국 20여개 도시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1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페라를, 2막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축 뮤지컬로 선보

이며, 3막에서는 헨델의 '메시아' 중 명곡을 들려준다.

올해 미국 투어를 LA 슈라인 오페라 교수이자 러시아 공훈 예술가인 보리스 아발란이 맡았다.

올해 미국 투어를 LA 슈라인 오페라 교수이자 러시아 공훈 예술가인 보리스 아발란이 맡았다.

2000년에 창단된 그라시아합창단은 2014 이탈리아 '리베텔가르다 국제합창대회'에서 대상, 스위스 '몽트뢰 국제합창제'에서 1등상 등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터넷 1+1 지원사업 선정작이다. 티켓구매는 인터파크 및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티켓 가격 10만원, 8만원. 문의 070-7530-52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행소년 KW4839' 시즌 1 장성서 공연

18·19일 장성문예회관

국립극단 청소년극 레퍼토리로 2014년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비행소년 KW4839' 시즌 1이 18일(오후 2시), 19일(오후 3시)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된다.

'비행소년 KW4839'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11명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연극이 시작되면 시간과 공간이 마치 순간이동을 하듯 관객은 승객으로, 배우들은 승무원으로, 극장은 공항으로 바뀐다. 극장은 공항의 여러 곳으로 순간이동을 거듭하며 수많은 이미지와 인터뷰, 독백들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기존의 연극과 다른 체험방식으로 진행되는 '비행소년 KW4839'는 이 시대 청소년들의 모습을 정직하고 진



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이덕진)와 희망문화협동조합(이사장 임준형)이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티켓을 무료로 배부한다. 문의 061-393-13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평등 도시 광주 실현' 위해 공감하는 정책 개발

광주여성재단 중장기 비전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이 16일 재단 회의실에서 성평등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광주여성재단 중장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향후 5년(2016~2020)간 재단 중장기 비전으로 '시민과 더불어 성평등 광주 실현'을, 이를 위한 미션으로 '지역과 공감하는 정책개발과 실행을 통한 성평등 공동체'를 설정했다. 핵심 사업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

책개발 및 활용도를 제고 ▲성주류화 정책의 효율적 정착 ▲국내·외 젠더네트워크 활성화 및 성평등교육전문기관으로 위상 정립 ▲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과 혁신전략 수립으로 책임 경영 강화 등을 선정했다.

장혜숙 대표이사는 "광주여성재단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해 성평등지수와 여성행복지수를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팀만 예식!!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